

서울북부 취업매거진

# 오마이잡(Job) '26년 여름호



# Contents

04

## 청년기자단의 체험기

내일배움카드? 직접 발급해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해봄!

08

## 고용센터에서 이런 것도 해요?!

약은 약사에게 기업은 기종스에게  
청년취업 GYM에서 취업근력 올리기

14

## 청년기자단 기획기사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  
- 취업 준비의 시간을 견디는 청년들

17

## 고용센터 직원들의 은밀한(?) 사생활

“꿈복이와 함께 줍깅”

18

## 찾았다! 이 기업

사회적기업 (사)해오름장애인협회

20

## 섬표(,) 지역탐방

더숲아카데미하우스-책과 숲, 머무름의 공간

24

## 대학탐방

덕성여자대학교

26

## 시시콜콜 상담소

청년인턴이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봄!  
- 사회초년생을 위한 꿀팁

27

## 고용센터에 날아온 편지 한 장

20년 경력의 50대 IT 개발자, 인생 2막을 열다

28

## 동문선배가 직접 꼭! 알려주는 취업이야기

나만의 이야기로 취업준비 시작하기, ㈜동운아나텍

30

## 서울북부 주요 행사

31

## 선물이 팡팡~ 독자 이벤트





# 국취? 직접 참여해봄!

## 청년기자단이 체험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최근 장기간의 경력 단절, 진로 미결정, 직업훈련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취업하지 못하는 구직자가 많다. 실업자 수 88만 명 시대, 그들을 도와줄 프로그램인 국민취업제도를 청년 기자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체험해 보았다.



기자는 재학 중인 대학교 공지 사항을 통해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처음 접했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제도를 신청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 구직자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우선, 5층 창구에서 수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했다. 가구 단위와 가구 소득 및 재산, 취업 경험, 현재 근로 여부 등을 작성했다. 담당자가 앞에 있어서 헛갈리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을 바로 해소할 수 있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 소요된다. 결과는 소득, 재산, 취업경험 등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으로 나뉘게 된다.

I 유형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 원, 6개월)이 지급된다. II 유형은 참여수당으로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취업성공수당은 I, II 유형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와 특정계층으로 인정받은 대상자가 취업종료하여 근속조건 등 충족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수급 자격과 수당 수령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격자가 되면, 1년 동안 4단계에 걸쳐 제도를 이행해야 한다. 1단계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단계로 1개월 이내 대면상담을 3회 실시해야 한다. 다음은 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단계로 5~8개월 동안 진행된다. 마지막 3개월은 집중취업노력 단계다. 끝으로 사후관리 단계 때는 취업지원 서비스 만료 후 3개월간 사후관리가 진행되며 이때 취·창업 하는 경우 취업성공 수당이 지급된다.

기자도 전담 상담 담당자를 배정받아 1:1 상담을 진행했다. 1차 상담에서는 제도 설명과 유의 사항에 대해 들었고 초기상담 질문지를 작성했다. 취업역량평가와 구직역량평가도 하며 전반적인 취업 준비 상황을 돌아봤다. 작성하다 보니 무엇이 부족한지, 어떤 능력은 잘 갖추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었다. '내일을 위한 약속을 통해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했고 비밀 유지도 보장받을 수 있었다.'

2차 상담을 앞두고는 과제가 있었다. '직업선호도 검사(L형)'와 '구직준비도 검사'를 해오는 것이었다. 검사는 고용24 홈페이지(취업지원 → 취업가이드 → 직업심리검사 → 성인용 심리검사)에서 실시했다. 2차 상담 때는 두 검사 결과를 해석 받았다. 혼자 볼 때는 내용이 이해했지만 앞으로 무엇을 이행해야 하는지 생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담당자와 함께 상담을 통해 앞으로의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

직업선호도 검사(L형)에서는 나의 관심과 성향을 확인했다. '진취형'과 '사회형'이 나왔다. 담당자는 이런 성향이면 내가 원하는 진로인 기자와 맞다고 말해줬다. 기자라는 꿈을 가져도 되는지, 나의 성향과 맞는지 의문이었었는데 전문적인 해석을 받으니 마음이 놓였다. 다만 정서적 불안정성이 높게 나왔다. 담당자는 불안과 스트레스 취약성이 높다고 해석해 주며 심리상담을 받을 것을 권해줬다.

3차 상담에서는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할 예정 이라고 안내받았다. 희망 직종, 희망 근무지, 희망 임금 등을 IAP에 적으면 된다. 추가로, 이 단계에서 1차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게 된다. 취업활동계획수립일을 매월 지정일로 정하고 이날이 되면 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지정일에 신청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구직활동 이행 단계에서는 IAP 수립 후 3~5개월 사이 에 최소 4회는 필수 대면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계획해 둔 구직활동을 실시하는 단계다. ▲구인 응모 ▲직업지도 프로그램 ▲직업훈련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 ▲고용-복지 연계사업 ▲일경험 참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매 회차 지급단위기간에 2개 이상 이행해야 한다.

사실 희망 직무를 정했지만 계속 나아가도 되는지 불안했고, 그에 맞는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몰랐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나와 직업에 대해 자세히 알게 돼 진로와 한 걸음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주변에 아르바이트와 진로 설계를 병행하는 친구들이 많다. 생계 걱정을 덜어주는 이번 제도를 주변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청년층(만 15~34세)부터 중장년층(만 35~69세)까지 지원할 수 있다. 취업을 망설이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취업 출발점이 되어 좋겠다.



글 서울북부 청년기자단 4기 강승민 기자  
기자의 체험 영상이 궁금하다면?

고용센터에서 이런 것도 해요?!

# 약은 약사에게 기업 고민은 '기종스'에게

년  
최고아베



## 서울북부고용센터의 '최강 콤비',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전담팀을 만나다

조용한 사무실 한편, 유독 분주한 자리 두 개가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 기업지원팀 안에서도 '기업지원종합서비스'를 전담하는 문미선 주무관과 온세정 주무관의 자리다. 두 사람은 웃으며 말했다. "저희가 나가지 않으면 일이 생기지 않죠." 짧은 한마디였지만 두 사람의 하루가 얼마나 바쁠지 짐작할 수 있었다.



기업지원종합서비스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지원을 찾아 연결해주는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다. 단순히 어려움을 겪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 내 우수한 기업을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채용이나 지원금, 노무 관리, 인프라 개선, 맞춤형 인재양성 등 기업 운영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고민을 함께 살핀다.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재 상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한 뒤, 서울북부고용센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다른 부서나 유관 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연계한다. 말 그대로 기업의 문제를 한 가지 방향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전담하는 두 사람은 자신들을 '최강 콤비'라고 표현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그 표현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기업 현황을 조회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특히 한 부서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는 다른 부서나 관계 기관과의 협업까지 필요하다. 그럼에도 두 주무관은 "서로의 성향이 보완되고 있기 때문에



돌아서 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조용한 사무실 속에서 가장 역동적인 자리, 바로 이 두 사람의 자리다.

현장에서 기업들이 가장 많이 털어놓는 고민은 두 가지다. "요즘 사업하기가 어렵다"는 말과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북부 지역은 1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 필요한 정보나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행정 절차가 익숙하지 않아 놓치는 경우도 있다. 두 주무관은 이런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숨은 지원금'을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설명한다. 기업으로서는 바쁜 시간을 쪼개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직접 찾아와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더 큰 도움이 된다.



가장 인상 깊은 사례도 있었다. 한 기업은 지역 내에서 우수한 기업으로 추천됐지만, 처음에는 '옴뎀 기업' 후보에도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북부고용센터 여러 부서가 함께 컨설팅을 진행하며 지원금, 인사노무, 일·생활 균형, 직업훈련 등 다양한 부분을 지원했고 그 기업은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문 주무관은 "저희가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냥 후보에서 떨어진 기업으로 남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지원종합서비스가 기업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 순간이었다.



'기업지원종합서비스'를 한마디로 정의해 달라는 질문에 두 사람은 수줍게 웃으며 '종합선물세트', '로또'와 같은 존재라고 답했다. 기업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부분은 '숨은 지원금'을 찾았을 때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던 지원금을 안내받고 실제로 도움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업들은 크게 반가워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두 사람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순간에 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이 서비스를 "기업 주치의"로 기억해 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약이 필요할 때 약사를 찾듯이 기업 운영에 고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의미다. 채용이 어렵거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싶거나, 지원금이 궁금하거나, 직원들의 직무 역량을 키우고 싶은 기업이라면 기업지원종합서비스의 문을 두드려볼 수 있다.

기업의 고민은 매우 복잡하고 정책은 어렵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이제 그 고민을 혼자 끌어안지 않아도 된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는 오늘도 기업의 고민을 듣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는 '최강 콤비'가 있다.



글·사진 서울북부 청년기자단 4기  
현예는 기자

직원채용, 근무환경 개선이 고민인 기업이라면?

# 기업지원종합서비스

기업들을 위한

종합컨설팅 + 장려금 연계 + 채용지원

맞춤형 종합컨설팅으로 기업의 복합애로사항 해결!



이런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A기업 채용지원

근로자 채용이  
어려웠는데  
채용서비스를 통해  
청년인재도 채용하고  
인건비 지원도 받았어요

### B기업 인사노무컨설팅

컨설팅을 통해  
근무환경도 개선하고  
육아휴직도 도입해서  
직원들의 근무만족도가  
높아졌어요

### C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기업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컨설팅해주어  
직원의 업무역량이  
향상됐어요

여기로 신청해요

문의 ☎ 02-2171-1868/1845

(기업지원종합서비스 전담자)



고용노동부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

11개 대학과 함께하는 취업 특강

# youth ON

청년의 잠재력을 켜고(ON), 내일의 나를 깨운다



일시 2026년 6월~7월 / 매회 14:00~16:00

참가대상 만 34세 이하 지역 청년

장소 서울북부고용센터 2층 교육장 및 9층 프로그램실

참가인원 대면 40명 내외

회차	날짜	프로그램명	특강 주제	운영대학
2회차	6.25.(목)	청년 취업을 위한 AI 활용 특강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면접 준비 전략 -직무별 AI 활용 사례와 취업 트렌드 이해	인덕대
3회차	7.1.(수)	로봇산업 현직자 특강	-로봇산업 트렌드, 취업시장 전망 -직무내용, 필요 역량 등 -관리자가 채용하고 싶은 신입사원	서울과기대
4회차	7.16.(목)	2026 공기업 채용시장 변화 및 취업 준비 전략	-최근 공기업 채용시장 및 채용 트렌드 변화 -공기업에서 중요하게 보는 핵심 역량 및 준비 방향 -NCS 및 직무 기반 채용 준비 전략 -자소서·면접 준비 방법 및 실제 사례	서경대
5회차	7.30.(목)	'잘하기'보다 '덜 힘들기' :직장생활 커뮤니케이션편	-관점의 차이: '다름'을 인정하는 소통의 시작 -말하기의 구조화: 오해를 줄이는 논리적 스피치 -감정을 견뎌낸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서일대

STEP 01

고용24 로그인

STEP 02

취업준비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STEP 03

프로그램 신청  
서울북부고용센터 검색

STEP 04

서울북부 유스온  
참가신청



프로그램 신청

고용센터에서 이런 것도 해요?!

# 청년취업 GYM에서 취업근력 올리기

취업이 고민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년층 집단상담 프로그램 두 가지(Cap@, 청년취업 GYM)가 있다.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Q 청년층 집단상담 프로그램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나요?**

'Cap@'는 이력서·자소서·모의면접까지 포함하는 4일짜리 구직 기술 향상 프로그램이고, '청년취업 GYM'은 2일간 진행되는 'Cap@'의 미니 버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진로 결정자 세션과 진로 미결정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두 집단 모두 체험과 실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이렇게 집단상담을 하는 이유와 그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집단상담의 가장 큰 장점은 '집단 역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욕이 없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참여자라도, 주변 분위기와 다른 사람의 말투, 행동이 전달되면서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자신감과 구직 기술을 높일 수 있습니다.

**Q 프로그램 참여 후 실제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사례가 있나요?**

가장 큰 성과라고 느끼는 건,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 "선생님이 연습시켜 준 자기소개서를 그대로 써서 서류 합격했다"라고 연락을 주는 참여자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이제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1~2개월 후 수업시간에 연습했던 자기소개서나 면접 기술을 실제 지원에 활용해 합격한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Q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한 말씀을 해 주신다면?**

"힘내라"라는 말보다는, "지금 잘 가고 있다"라는 말을 해 주며, 쉬는 데에도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인생은 길고, 2~3년 정도 쉬는 것도 긴 인생에서 큰 문제로 보긴 어렵다고 느낍니다. 스스로 쉬어야 할 때를 선택하고 다시 나오는 과정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응원해 주는 역할을 중장년 세대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참여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Q 참여하게 된 계기와 기대하셨던 점은 무엇인가요?**

현재 새로운 분야로 이직을 준비 중인데,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스스로 키우고 싶은 역량을 발전시키고 싶었습니다. 또한 진로 방향성을 찾고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과 기업이 원하는 방향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Q 집단상담 형식에 대한 느낌은 어땠나요?**

처음엔 부담이 있었지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Q 프로그램 내용 중 기억에 남는 점이 있나요?**

기업 정보, 인재상, 채용 과정 등을 워크북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간 서로 공감하고 응원하는 분위기가 좋았고, 강사님의 태도도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참가자 개개인을 존중해준 점이 좋았습니다.

**Q 주변에 추천하고 싶은지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취업 준비생, 이직을 고민하는 직장인, 자기 이해와 방향 설정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서울북부 청년지원단 4기 강승민 기자  
인터뷰 서울북부고용센터 조경아 상담원  
프로그램 참여자(진로 미결정자), 27세 최OO



신청방법 고용24(www.work24.go.kr) →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서울북부고용센터 선택하여 검색 후 신청

프로그램 1일차  
(9:30~4:30, 6교시)

프로그램 2일차  
(9:30~4:30, 6교시)

진로 결정자

- ▶ 커리어 스토리 탐색
- ▶ 나에게 적합한 직업세계 심층탐색
- ▶ 기업채용 트렌드와 채용전형의 이해

- ▶ 청년을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준비
- ▶ 청년을 위한 면접준비

진로 미결정자

- ▶ 가치 탐색을 통한 생애 목표 설정
- ▶ 커리어 스토리 탐색
- ▶ 직업정보 탐색과 진로 선택

- ▶ 나에게 적합한 직업세계 심층탐색
- ▶ 청년을 위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준비

#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 취업 준비의 시간을 견디는 청년들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는 청년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압박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

누군가는 합격 소식을 전하고, 누군가는 또 한 번 지원서를 고친다. 취업 준비의 시간은 청년들에게 불안과 비교, 자책이 반복되는 과정이 되기도 한다.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대학생과 그 시간을 지나온 직장인의 목소리를 통해 취업 준비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함께 정리했다.



취업 준비는 단순히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만이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잠 못 드는 밤이고, 누군가에게는 친구의 합격 소식 앞에서 애써 웃어야 하는 시간이다.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와 반복되는 비교, 경제적 부담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미디어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 4학년 김희은 씨는 현재 스포츠 마케팅 분야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자격증을 준비하며 인턴 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김 씨는 취업 준비를 시작하던 때를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었다고 표현했다. 해야 할 일은 많지만, 정작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서 자신을 뽑아줄지 확신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 씨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것은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이다. 그는 “줄글로 된 지원서만으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필하기가 어렵다”며 “면접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는 데에는 자신이 있지만 글로는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학교생활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는 일도 부담이다. 김 씨는 “학교와 취업 준비 모두 집중이 필요한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다가는 이도 저도 안 될 것 같아 막막하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를 겪어본 직장인 정 씨의 기억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재 IT기업 홍보팀에서 근무 중인 정 씨는 졸업 후 약 5개월 동안 홍보, 마케팅, 영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했다. 그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취업한 친구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를 꼽았다.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말에는 당시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정 씨에게 가장 큰 부담은 미래의 불확실성이었다.

지방 출신으로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부담도 커졌다. 정 씨는 당시 “이러다가 영영 취업 못 하면 어떡하지?”라는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했다고 떠올렸다. 탈락을 경험했을 때는 “슬펐다. 못 버텼다”고 답했고, 취업 준비 기간 내내 “매 순간” 스스로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답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것은 ‘탈락이 곧 내 부족함’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정 씨는 직장인이 된 뒤 탈락을 다르게 바라보게 됐다고 했다. 그는 “입사 전형에서는 회사가 선호하는 성향, 함께 일할 동료와의 합, 업무 적합성 등 다양한 요소가 평가된다”며 “스스로가 부족해서 탈락했다는 자책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은 심리적 문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자격증, 어학시험, 면접 복장, 포트폴리오 제작 등 취업 준비에는 비용이 든다. 김 씨는 “독립은 해야 하는 나이인데 경제적 능력은 없다”며 생활비 지원과 취업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 씨 역시 “어학시험 응시로 지원 정책을 활용하며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책이 있어도 청년들에게 충분히 닿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김 씨는 청년 취업 지원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외에는 이용해본 경험이 없다고 했다. 그는 “제가 어떤 걸 신청할 수 있고 어떤 걸 할 수 없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알면서도 신청 과정이 복잡해서 그냥 넘어갈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취업 준비 과정에서 청년들이 겪는 부담은 심리적·경제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를 덜기 위해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 등이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과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요건을 충족한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등을 지원한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청년에게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강화를 돕는다. 면접을 앞둔 청년은 지자체별 면접 정장 대여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경제적 기반 마련을 돕는 금융지원 제도도 있다. 2026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유형에 따라 정부 기여금이 더해진다. 생활비나 학업·취업 준비 비용이 필요한 청년은 햇살론유스도 살펴볼 수 있지만, 대출 상품인 만큼 상환 부담을 고려해 신중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두 인터뷰이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쉬웠음 청년”이라는 단어가 정말 싫다”고 말했다. 정 씨 역시 “캥거루족과 같이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을 부정적으로 비출 수 있는 단어부터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당장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청년의 시간을 게으름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취업 준비는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지나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시간이 곧 무능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김 씨는 자신의 취업 준비 과정을 “맨땅에 헤딩”이라고 표현하면서도 “저는 꼭 성공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실패해도 다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다. 사회는 청년들의 공백을 게으름으로 단정하기보다, 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온통청년(온라인 청년센터) [www.youthcenter.go.kr](http://www.youthcenter.go.kr)  
대한민국 각 부처의 청년정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

기획취재 서울북부 청년기자단 4기 현애은 기자



## 면접 준비부터 피드백까지 한 번에!

면접 준비부터 피드백까지 한 번에!  
**서울북부고용센터 AI 면접실**

면접 준비가 고민이라고?  
나 꿈복이가 도와줄게!  
시면접실, 같이 알아보자!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  
서울북부고용센터

다양한 면접을 경험해보세요!

- 인성-전공-직무
- NCS 면접
- 외국어 면접
- 역량검사 게임

다양한 실전 경험으로  
면접 두려움은 ↓  
자신감은 UP ↑

이용방법, 어렵지 않아요

1. 센터 홈페이지 배너 예약하기
2. 지정된 시간에 센터 방문
3. AI 프로그램으로 실전처럼 연습

센터 4층으로 오면  
담당자가 안내해줄거야!

AI의 꼼꼼한 피드백

- 표정, 시선, 자세 분석
- 말투, 답변내용 분석
- 영상 & 모범답안 제공
- 결과 이메일 발송

연습이 실전이 되는 마법,  
서울북부고용센터  
AI 면접실에서 경험해봐!

신청하기

제작 서서울북부 청년인턴 김다영

## “꿈복이와 함께 줌깅”

서울북부고용센터 직원들의 플로깅(Plogging) 활동



“플로깅(Plogging)”이란?

줍는다는 뜻의 스웨덴어 plocka upp과 영어 jogging의 합성어로, 조깅을 하면서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자연보호 활동이 합쳐진 개념의 신조어이다. “꿈복이와 함께 줌깅(꿈줍깅)”은 서울북부고용센터 직원들이 만든 동호회로, 월 1회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서울 노원역 인근이나 종량천 일대를 걷다 보면 집게를 장착하고 알록달록 애개미를 두른 사람들을 마주 칠 수 있다. 바로 서울북부고용센터 직원들로 구성된 플로깅 동호회 ‘꿈줍깅’이다.

‘꿈줍깅’은 박미현 소장이 과거 객지 근무 당시 플로깅을 통해 얻었던 건강과 성취감을 서울북부센터 직원들과 나누고 싶어 창설한 동호회다. 처음엔 2~3명이라도 함께 해보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직원들이 함께 해주어 지금까지 쭉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25년 11월 첫 활동을 시작한 ‘꿈줍깅’은 월 1회 활동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7명의 직원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들은 부서도, 직급도 제각각이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한 마음으로 집게를 들고 센터 주변과 종량천 일대를 누빈다.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평소에 지나쳤던 길가에 핀 꽃 한 송이, 햇빛 아래 반짝이는 종량천의 물결이 새삼 눈에 들어온다. 여기에 사무실에서 자주 소동하지 못했던 다른 팀 동료들과 나란히 걸으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것도 꿈줍깅이 주는 소소한 즐거움이다. 이러한 ‘꿈줍깅’만의 매력이 직원들에게 지친 일상 속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다.

거창한 활동은 아니지만, 함께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과 보람을 안고 ‘꿈줍깅’의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이다.

찾았다! 이 기업

# 기술로 세상을 지키고, 나눔으로 사회를 잇는 사회적기업 '(사)해오름장애인협회'

6년 연속 사회적가치지표 우수등급,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장관 표창 수상,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다.



사단법인 해오름장애인협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2014년 설립됐으며, 복지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인 스스로가 경제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일자리 창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설립 당시 10명으로 시작한 작은 협회는 어느새 54명이 함께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서울 신내동 사무실에서 실무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협회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크게 CCTV, 영상음향방송장치 등 ICT 설비의 설계부터 생산, 시공, 유지보수까지 담당하는 통합 솔루션 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와 관공서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전체 근로자의 70~80%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 조립이나 포장이 아닌 전문 기술직으로서 이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기술력에 사회적 가치를 더하다'라는 경영 핵심 가치 아래, 협회는 사무실 바로 옆 작업장 겸 기업 부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 2023년 AI 기반 CCTV 출시를 시작으로 관리 시스템 특허 등록, 직접생산증명 발급까지 해마다 뚜렷한 기술 성과를 쌓아왔다. 특히 한 해의 성과가 아닌 2020년부터 6년 연속 사회적가치지표 우수등급을 유



지하고 있다는 점은 협회가 꾸준히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온 진정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담당자는 이 과정에서 가장 크게 체감한 변화로 단순 노동이 아닌 전문 기술직 종사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장애인 근로자들의 달라진 표정과 목소리를 꼽았다.

일 못지않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협회는 근무 환경과 복지에도 꾸준히 신경 쓰고 있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계기로 휠체어 이동 편의성 등을 고려해 사무실을 이전했고, 근로자 개개인의 역량에 맞는 교육 커리큘럼 설계와 자격증 취득도 지원한다. 음악·미술·운동치료 프로그램도 정기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와 병원 일정을 고려한 유연근무제와 자유로운 연차 사용 문화도 이 협회만의 문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가족친화기업 실천과 일·생활균형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며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협회의 역할은 사업장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매년 지역 구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에도 참여하고 장애인고용공단과 연계해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연탄 봉사

라면 기부, 물품 후원, 장학사업, 문화예술 지원 등 나눔 사업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지난 해 7월,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유공 장관 표창' 수상은 이런 노력들이 외부에서도 인정받은 결과다. 수상 소식에 구성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어준 대표의 신뢰에 모두가 믿음으로 답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노영주 해오름장애인협회 대표는 "취약계층과 장애인분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회사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갖고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인터뷰에 응한 전희진 대리는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 "사회적기업은 단순히 좋은 일을 하는 곳을 넘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내야 하는 역동적인 현장입니다. 주어진 역할에 만족하기보다 스스로 기회를 발굴하는 능동적인 태도가 여러분을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라며 따뜻한 격려의 말로 인터뷰를 마쳤다.

글 서울북부 청년인턴 김다영  
사진 (사)해오름장애인협회





# 더숲아카데미하우스

책과 숲, 머무름의 공간



북한산 자락 아래, 오래 기다린 문이 다시 열렸다. 한동안 조용히 닫혀 있던 공간을 기억하는 주민들에게 '더숲'이라는 이름을 더한 아카데미하우스의 재개관은 새 공간의 탄생보다, 오래된 장소가 다시 탄생하는 순간처럼 다가온다. 강북구 수유동 숲길을 따라 들어서면 만나는 이 곳은 책을 읽고, 전시를 보고, 잠시 머물며 사유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이 곳은 기존 '아카데미하우스'의 일곱 채 건물의 골격과 외관 등 옛모습을 살리는 방향으로 리모델링했다. 둘러보고 지나가는 곳보다 머무르며 느끼는 공간에 가깝다. 건물마다 이름과 쓰임은 다르지만, 전체를 관통하는 분위기는 하나다. 읽고, 쉬고, 다시 집중하는 것.



대화의 집

2026년 봄 재개관 이후 더숲아카데미하우스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채워지고 있다. 책장 앞에 멈춰 선 방문객, 대화를 나누는 사람, 숲길을 따라 건물 사이를 걷는 이들이 곳곳에 머문다. 공간 곳곳에 놓인 책과 전시를 이곳을 빠르게 지나치기보다 천천히 둘러보게 만든다.

'대화의 집' 그 이름처럼 대화와 만남의 장으로 사용되어 온 이곳은 조용한 숲속에 자리한 건물로, 결혼식 등 행사 공간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심표(,) 지역탐방



더숲스테이 객실



사이마루

본관은 1층 다이닝&카페, 2,3층 더숲스테이, 4층 라운지, 5층 루프탑으로 구성되어 있다.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싶다면 본관 '더숲스테이'가 있다. 총 32개의 객실로 구성된 더숲스테이에는 공용 독서 공간 '사이마루'와 작은 도서관 '사이서가가 함께 마련되어 있다. 객실에 머무는 시간에는 조용한 침과 독서가 함께 놓인다. 책장을 넘기고, 창밖의 숲을 바라보며 잠시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일을 위한 집'은 이름처럼 다음을 생각하게 한다. 이곳에는 기업 연구 공간과 함께 도서관 '사유의 숲'이 자리한다. '사유의 숲'은 김수환 추기경 등 여러 인물이 미래세대에 추천하고 싶은 책을 기증해 서가를 채우고 있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책을 고르는 일은 곧 누군가가 남긴 질문을 따라가 보는 일이 된다.



본관



여해의집



창업자 강원용 목사의 사택으로 쓰였던 '여해의 집'은 현재 연수자를 위한 숙소와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 사람의 생활이 머물던 자리에 다시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는 점에서, 이 공간은 더숲아카데미하우스가 지닌 시간의 결을 잘 보여준다. 과거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쓰임 속에서 다시 이어진다.

전시를 즐기고 싶다면 '새벽의 집'을 찾을 수 있다. 이곳에서는 6월 15일까지 개관 기념 전시 '숲을 거닐다'가 진행 중이다. 전시 제목처럼 더숲아카데미하우스에서의 관람은 작품 앞에 잠시 멈추는 일만을 뜻하지 않는다. 건물과 건물 사이를 걷고, 숲의 공기를 지나고, 공간의 이름을 천천히 읽는 과정 전체가 하나의 전시처럼 느껴진다.

더숲아카데미하우스의 가장 큰 매력은 모든 공간이 책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다는 점이다. 숙소에는 독서 공간이 있고, 연구 공간에는 도서관이 있으며, 건물 곳곳에는 머무는 사람의 시선을 붙잡는 책들이 놓여 있다. 책이 공간 전체로 번져나간 이곳에서는 책이 공간 전체를 연결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도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아도,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곳. 더숲아카데미하우스는 그런 공간이다. 과거에는 시대의 문제를 두고 사람들이 모여 대화하던 자리였고, 지금은 책과 침, 배움을 통해 다시 사람들을 부른다. 북한산 자락 아래, 이곳은 오늘도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새로운 삶의 감각을 깨우는 여정을 함께하자고 제안한다.

글·사진 서울북부 청년기자단 4기 현예은 기자



새벽의 집(전시공간)

# 'D:SIGN' 로드맵을 통한 성장의 동반자,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우수' 기관과  
함께 하는 미래 설계

## Q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플 러스센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덕성여자대학교는 진로취업 지원 센터와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저학년부터 졸업생까지 아우르는 '전 주기적 커리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을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11명의 전담 컨설턴트가 단과대 별 밀착 상담을 제공합니다.

특히 진로 체계를 'D:SIGN(디자인)'으로 고도화하여, 자기이해와 진로 탐색-목표설정과 진로설계-직무 역량과 취업전략-일경험과 사회진출-청년층 취업지원과 경력개발까지 5단계 로드맵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미래

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청년에게도 상담 인프라를 개방하고 유관 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활발한 고용 생태계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 Q 덕성여자대학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는 어떤 프로그램인 가요?

덕성여자대학교는 2024년부터 고용노동부의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재맞고)'를 운영해 왔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유전공제로 입학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조기 진로설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학생의 성장단계에 따라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첫번째는 빌드업 프로젝트입니다. 저학년 학생들이 자기 이해와 상담을 통해 '직업설계서' 및 '경력개발 로드맵'을 작성하고 AI 시뮬레이션과 진로 동아리 '커리어크루' 등 자기주도적 활동을 통해 진로 목표를 구체화합니다.

두번째는 점프업 프로젝트입니다. 취업을 앞둔 고학년 학생들이 전문 상담사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직무에 필요한 교내의 프로그램과 직업훈련을 연결해 직무 역량을 강화합니다. 특히 점프업 수당을 지급해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실천 취업 준비에 전념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 Q 지난 4월에 열린 직무박람회 (JOB Fair)에서 중점을 둔 부분 이 있을까요?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경험의 장'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자유전공제 특성을 고려하여, 저학년에게는 'D:SIGN 기반 진로설계'를 통한 직무 탐색 기회를, 고학년에게는 현직자 1:1 멘토링을 통한 '실전 취업 전략'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직무상담부스는 현직자 실무 중심 상담으로 직무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고, 정책상담과 해외 취업 및 노동법률 상담 부스도 운영하였습니다.

## Q 2025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차성과평가 최고등급인 "우 수"를 받으셨습니다. 비결이 있 으실까요?

첫째, 5단계 'D:SIGN' 로드맵으로 고도화된 체계적 진로지원체계입니다. 특히 AI 프로그램을 도입해 디지털 상담 인프라를 혁신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둘째,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의 안정적 운영과 높은 참여도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목표치를 상회하는 높은 달성도를 기록했으며,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경력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셋째,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인턴십 및 일경험 프로그램'입니다. 고용노동부 미래내일일경험 등을 적극 연계하였고, 사전 직무 교육과 사후 상담을 통해 경험이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의 우수한 인프라를 지역 청년들에게 개방하고, 릴레이 특강이나 고용 정책 홍보를 공동 수행하며 지역 고용 대학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한 점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 Q 마지막으로 덕성여자대학교는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비 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청 년 고용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 여하고자 하는지 포부가 공공 합니다.

진로지원체계 'D:SIGN'의 의미처럼, 학생들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Design)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AI 기반 정밀 진단과 전문 컨설턴트의 밀착 케어를 결합, 입학부터 졸업까지 공백 없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직자 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이 이론을 넘어 현장에서 실력을 증명하는 '실전형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유관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양질의 고용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청년 고용 활성화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만의 'D:SIGN' 로드맵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 인터뷰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일자리부  
진로취업센터장 최미선

📸 사진 덕성여자대학교



# 청년인턴이 근로감독관에게 물어봄!

## 사회초년생을 위한 꿀팁

● 질문 서울북부고용센터 청년인턴  
● 답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이해경 수석근로감독관

**Q1** 중도 입사자의 연차 산정에 대해 질문하고 싶습니다. 추가 합격이나 채용으로 입사 시 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연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이 되면 지난 1년 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Q2** 포괄임금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아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따로 청구할 수 없는지,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자 간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초과근로가 근로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 아래에서의 근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3** 수습기간에는 월급을 덜 받는게 당연한 건지 궁금합니다. 입사할 때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월급의 90%만 준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회초년생의 수습기간 기준은 무엇인지, 혹시 제 계약 기간이 짧아도 감액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수습기간에 임금을 달리 정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감액 대상에서 제외)

**Q4** 1년 가까이 일할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3개월 단위로 계속 새로 쓰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만약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은 한 푼도 못 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나 근로계약서의 작성 횟수가 아니라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기간이 단절없이 연속된다면 1년 이상 근무 시후 퇴사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년 경력의 50대 IT 개발자, 경력전환으로 인생 2막을 열다

20년 이상 IT 개발자 경력을 가진 이○○(여, 52세) 씨는 회사의 폐업으로 갑작스레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경력을 믿고 구직활동에 나섰지만, IT 업계의 젊은 층 선호와 고경력 기피로 계속 서류에서 탈락하며 출구를 못 찾고 있었습니다.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을 활용한 결과, IT 분야 재취업뿐 아니라 전산교육자라는 장기 경력설계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사례

### 호소 문제

"다음 달에 실업급여가 만료되는데 최대한 빨리 취업하고 싶어요."  
"반복된 서류 탈락과 면접 불합격으로 우울감이 생겼어요."  
"더 이상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 고용센터에서 이런 지원을 받았어요

- ✓ 직업심리검사, 가치관 검사 결과 해석
- ✓ 신중년 재취업설계 집단프로그램(신호탄) 참여로 구직의욕 향상, 또래 네트워크 형성
- ✓ 고용24 잡케어(Job Care) 시스템으로 취업 시장 분석 정보 제공
- ✓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심층 상담을 통해 경력 확장(전환) 방향 조정
- ✓ 취업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참여
- ✓ 사례관리협업체를 통한 다양한 유관기관 취업알선

### 결과

- ✓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의 전산시스템 테스터로 재취업, 미래를 위해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 참여 중

## 소감 한마디

고용센터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찾아갈 수 있는 쉼터 같은 곳입니다. 특히 구직자 도약 보장패키지 상담사님은 한결같이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점은 고용센터에서 집단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고 함께 그 과정을 경험하고 격려하며, 나 자신의 몰랐던 점을 발견하고 새로운 분야로 나를 확장시키는 변화를 모색하게 된 점입니다.

저는 상담사님의 안내로 경력 로드맵을 그리고 제 인생향로를 설정하여 기존 경력 분야를 확장한 IT 관련 분야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고, 장기적으로 전산 관련 교육자의 길을 걷기 위해 회사에 다니면서 직업훈련교사 주말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또다시 갑자기 실직을 경험하더라도, 목표가 있으니 처음보다는 덜 흔들리고 덜 힘들 것 같습니다.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이 좀 더 많이 고용센터의 도움을 경험하시고, 단단하고 뿌리깊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 나만의 이야기로 취업준비 시작하기

‘동운아나텍(주) 응용기술그룹 제어파트에 취업한 선배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성공노하우! 나만의 기준을 세워 산업군과 직무 정하기  
미리미리 기록해둔 경험의 자산화로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 Q 취업준비할 산업군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셨나요?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앞서 제가 가장 공을 들였던 과정은 저만의 확고한 '선택 기준'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막연한 구직 활동 대신, 저는 산업군과 직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제가 나아갈 길을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산업군을 정할 때는 전자공학이라는 전공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면서도 평소 흥미를 느꼈던 반도체, 방산, 통신 분야를 후보군에 두었습니다. 단순히 유망한 산업을 쫓기보다 각 산업군 특유의 분위기가 제 성향과 맞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산업마다 보수적이거나 자유로운 고유의 문화가 존재하기에, 제가 오랫동안 몰입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 이미지는 연출된 가상이미지입니다.



## Q 지원할 직무를 정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었나요?

채용공고의 '주요 업무'와 '자격 요건'을 대조해 보며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실적인 판단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아날로그 설계 직무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 학부 졸업 예정자인 저에게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직무 설정의 핵심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의 접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기술적 기반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으면서도, 향후 커리어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발전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제어 파트'를 저의 커리어 시작점으로 확정했습니다.

## Q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취업 준비를 하며 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했던 부분은 바로 '경험의 자산화'였습니다. 아무리 값진 활동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기 마련이고, 정작 자소서나 면접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떠오르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는 대학 생활 동안의 모든 발자취를 노션(Notion)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기록의 내용은 단순히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격에 따라 세밀하게 분류했습니다. 대한전자공학회 공모전과 졸업 작품, IDEC 교육처럼 전공 역량을 쌓았던 활동부터 서울대 공정 실습과 하만 세미콘 아카데미 등 반도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과정들을 빠짐없이 담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한 확신을 느끼고 편입을 결심하게 된 솔직한 동기와 그 이후의 변화들을 기록하며 저만의 스토리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 Q 그 외 취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경험들이 있나요?

동아리 부회장이로서 조직을 이끌었던 경험은 물론,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피시방, 독서실,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쉬지 않고 이어온 아르바이트 경험은 저의 '성실함'과 '근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도 모두 정리해 놓아 자소서를 쓸 때마다 언제든지 꺼내 볼 수 있는 든든한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되어주었습니다. 단순히 문장을 채우기 위한 참고 자료를 넘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아왔는지 스스로 확신을 얻는 계기가 되었고, 그 확신은 면접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저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전달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인터뷰 한성대학교 IT공과대학 전자트랙 졸업생 박00

서울북부 주요행사



2026년 3월  
**서울북부  
고용노동정책 설명회  
간담회**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주관으로 노원구민의 전당에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부서와 유관기관이 함께 정책을 안내하였습니다.



2026년 4월  
**꿈JOB고 일자리  
수요데이 간담회**

청년특화 직군으로 진행된 "꿈JOB고" 일자리 수요데이에서 채용설명회와 현장면접을 통해 구직자와 채용기업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꿈JOB고" 일자리 수요데이는 다양한 테마로 매월 진행됩니다.



2026년 4월  
**지역청년고용네트워크  
상반기 간담회**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청년 유관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청년취업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을 기획·운영 예정입니다.



2026년 4월  
**서울북부 청년기자단  
4기 운영**

서울북부 청년기자단 4기 발대식을 시작으로 3개월 간 청년정책과 관련된 본격적인 현장 취재 활동을 하였습니다.



2026년 4월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와  
MOU 체결 및커리어 상담  
DAY 운영**

노원구 청년일자리센터 청년내일과 청년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 전문상담사가 청년내일에 찾아가는 진로 상담소를 3일간 운영하였습니다.



2026년 4~5월  
**대학직무박람회,  
지역행사 현장 정책 홍보**

4·19문화제, 중랑장미축제, 각 대학 직무박람회에 고용센터가 참여하여 유용한 취업·기업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정책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2026년 5월  
**SH중랑주거안심  
종합센터와 MOU 체결**

SH중랑주거안심종합센터와 구직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서울북부고용센터 3층에서 주거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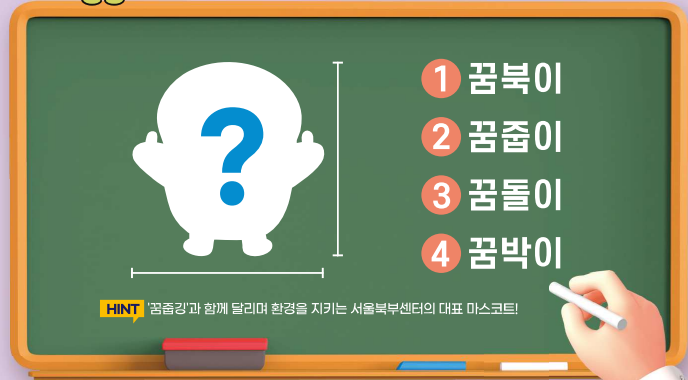
선물이 팡팡~ 독자이벤트

나는 누구일까요?

# QUIZ EVENT



중랑천에 나타난  
의문의 실루엣을 찾아라!



HINT '꿈줍깅'과 함께 달려며 환경을 지키는 서울북부센터의 대표 마스코트!

**참여방법**

옆 QR 코드로 접속하여 위 답안과 구독 소감을 남겨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 7월 31일까지**

당첨자 별도 문자 안내 예정(2026년 8월중)



**서울북부 청년기자단 5기 모집에 도전해보세요!**

**34세 이하 청년 누구나~**

오마이잡 매거진 제작에 기자로 참여하고, 온라인 콘텐츠 분야로도 활동할 수 있어요. 8월 모집 예정(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등 게시)





서울북부고용복지<sup>PLUS</sup>센터

발행일 2026년 6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

기획·편집 박철준 지청장, 박미현 소장, 조민주 팀장, 박수지 주무관, 이효진 주무관

서울북부 청년기자단 강승민, 현예은

서울북부 청년인턴 김다영

주소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해청빌딩

전화 02-2171-1725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seoulbukbu/main.do>



홈페이지

※ 이 책의 저작권은 서울북부고용복지\*센터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